

# 팬데믹 위기에도 강원 체외진단 산업화 전진기지 ‘순항’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원센터 구축



1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전경 2 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원센터 3 용북합지원센터 조감도

강원 춘천시와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전국 첫 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진흥원은 재작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신규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 체외진단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까지 3년에 걸쳐 국비 90억 원 등 280억 원이 투입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화의 병목 구간인 제품 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고자 기반시설(GMP)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진단용 항체를 국산화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속한 질병 진단과 관리 능력은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됐고, 체외진단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 사업을 통해 관련 기업의 창업과 제품 출시, 기업 성장,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거점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체외진단센터는 재작년 2월부터 진흥원 인근 1만 546㎡ 부지에 조성 중이다.

앞서 진흥원은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체외진단 창업기업 6곳을 선정했다.

진흥원은 지원센터가 앞으로 품질관리 기준체계(GMP) 인프라 구축은 물론 분자진단을 비롯한 40여 종의 계약과 100여 개의 체외진단 및 바이오 관련 전문 기업 육성에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진단제품 30건 출시와 3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이에 따른 424억 원의 매출 효과를 예상했다.

진흥원은 스크립스코리아향체연구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함께 플랫폼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기관의 특화 분야를 연계한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는 용북합지원센터를 착공해 향후 바이오 및 관련 기업들의 보육공간도 제공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지난 2003년 설립돼 춘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기업 보육·창업부터 사업화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오고 있다.

유지욱 진흥원장은 “기업의 노력과 강원도, 춘천시의 전략적 지원이 큰 몫을 했다”며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역 바이오기업 성장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